

## 두 어르신의 사과

대한민국의 건강한 남자라면 누구든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져야 한다. 그리하여 대부분 군대에 입대하여 국방의 의무를 다하지만, 나는 조금은 특별한 경우로 산업기능요원으로서 군복무를 대신하였다. 그때의 잊지 못할 경험을 이번 ‘2019 국민 참여 청렴 콘텐츠 공모전’을 통해 이야기해보고자 한다.

나는 선박의 항해사로 병역특례생활을 하였다. 내 또래 친구들이 연병장에서 총을 들고 훈련받고 있을 때, 나는 드넓은 바다에서 쌍안경을 들고 항해를 하고 있었다. 내가 승선했던 배는 한국에서 생산한 제품을 중국이나 일본, 멀게는 홍콩까지 수출하는 선박이었고, 나는 길게는 9박 10일씩 좁은 배 안에서 생활하며 육지가 보일 때까지 3교대로 항해하는 일을 담당했다.

학교에서 공부만 하던 철부지 어린 학생이 선박에 승선하여 바로 업무를 맡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었다. 무엇보다 힘들었던 것은 외로움이었다. 한국에서 기다리고 계시는 부모님 걱정도 많이 됐지만, 울면서 나를 떠나보낸 여자 친구가 그 누구보다도 보고 싶었다. 그렇게 향수병 아닌 향수병에 걸려 초반 3개월은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도 힘든 나날들을 보냈다. 이런 고충은 나만이 겪는 일이 아니었다. 아마 해상직원들이라면 누구라도 공감할 것이다.

그런 고충에 대한 위안이라면 위안이랄까. 선박 직원들이 제일 기다리는 것은 육상으로 상륙하는 시간이었다. 한국에서 실어온 짐을 부리는 반나절 정도의 시간이 직원들에게는 종종 자유시간으로 주어졌는데, 이때 한국에 있는 가족들과 오랜만에 통화도 하고 외국의 대도시를 관광하며 그동안의 스트레스를 풀 수가 있었다.

드디어 길고 긴 열흘간의 항해가 끝나고 모두가 기다리던 중국의 큰 도시에 입항(入港)하는 날이 되었다. 육상으로 상륙하기 전 선장님께서 직원들에게 봉투를 하나씩 나누어 주셨다. 그 봉투에는 중국 돈이 들어있었다.

당시 아무것도 모르는 초임항해사였던 나는 나의 바로 윗선임인 항해사님께 “이게 무슨 돈인가요?” 라고 물었다.

“응, 그런 건 네가 몰라도 되니까 선장님께서 주시면 그냥 ‘고맙습니다’ 하고 받으면 되는 거야.” 하며 돈의 출처에 대해서는 말씀해 주지 않으셨다. 세상

에 돈 싫다 하는 사람이 있을까. 나 역시도 마찬가지로 ‘이게 웬 떡인가!’ 하며 기분 좋게 봉투를 받아들이고 첫 상륙지를 관광하였다. 그렇게 중국에서부터 일본, 멀게는 대만까지 항해하며 나는 점점 초짜 항해사에서 거친 파도와 싸우는 바다 사나이가 되어가고 있었다.

일은 선박이 중국의 ‘상하이’ 라는 도시로 입항한 날 일어났다. 기관실에서 기관장님과 기관사님께서 언성을 높이며 다투고 계셨다. 기관실의 소음 때문에 정확히 어떤 이유로 다투시는지는 알 수 없었지만 상황이 매우 심각해 보였고, 급기야는 전 직원을 휴게실로 소집하기에 이르렀다.

기관장님께서 상기된 얼굴로 말씀하셨다.

“아이고 선장님! 기관사 저놈이 글썽 그동안 우리가 했던 일을 안 하겠답시다!”

‘그동안 우리가 했던 일?’ 도통 무슨 말을 하는지 알 수 없었다.

그 말을 들은 선장님께서 말씀하셨다.

“기관사 이 사람야! 그건 어느 배에서나 하는 일이야. 우리 배에서만 하는 일이 아니란 말이네!”

그 말을 조용히 듣고 있던 기관사님께서 말씀하셨다.

“다른 배에서 한다고 우리 배에서도 한다는 말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저는 더이상 그 일을 할 수 없습니다.”

기관사님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옆에 계시던 기관장님께서 말씀하셨다.

“이 사람 참 말 안 통하는 사람이구먼! 그 일은 우리 직원들 회식비로도 쓰고 상륙할 때 용돈도 마련하려고 하는 일이네. 다른 배에서도 다하는 관행이야, 관행! 자네 앞길도 한참 남았고 나중에는 기관장도 해야 할 사람이, 이러면 회사 생활 힘들어진다는 것 모르겠나?”

“안됩니다! 적어도 제가 이 배에 있는 한, 두 번 다시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기관사님께서 그 자리를 박차고 나가시면서 소동은 일단락되었다. 그 순간 15명의 직원 중 단 한 사람, 나만 어리둥절해 있었다. ‘어느 배에서나 하는 일? 회식비? 관행? 용돈?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거지?’

머릿속이 복잡해져만 갔다. 궁금한 건 못 참는 나였기에 곧바로 선임 항해사님께 찾아가 무슨 일인지 여쭙보았다. 그리고 알게 된 사실은 가히 충격적이었

다.

각 기항지나 입항지에서 가끔 또는 자주 선박의 연료유(燃料油)를 현지인들에게 암암리에 조금씩 팔아 왔으며, 그렇게 얻은 수익으로 회식을 하거나 직원들에게 상륙비 명목으로 나누어 주었다고 한다. 내가 첫 상륙지에서 받았던 돈도 바로 그런 돈이었다. 그런 일들이 관행(慣行)이라는 미명 아래 선박에서 벌어지고 있었으며 더이상 양심의 가책을 무시할 수 없었던 기관사님의 양심 고백이라면 양심 고백이, 다시는 선박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끈 것이다.

그날 이후 선박에서는 미묘한 분위기가 감돌았다. 직원들이 하나둘씩 기관사님을 피하기 시작했고, 기관장님은 점점 기관사님이 하는 일에 탄지를 걸기 시작하셨다. 직원들 두 명만 모여도 기관사님 흉을 보기 바빴다.

“그래 넌 잘나서 좋겠다. 혼자 잘난 척은 다 해요, 다 해!”

학창시절에나 있을 법한 ‘따돌림’이 내가 타고 있는 선박에서도 일어났다. 기관사님은 바른말을 하고 바른 행동을 했음에도 욕을 얻어먹었다. 기관사님은 그런 말을 듣고도 대꾸조차 하지 않고 묵묵히 자신의 업무에만 집중하셨다. 그런 기관사님께 나이 어린 초임항해사인 내가 해드릴 수 있는 것은 말없이 커피를 타드리는 일밖에 없었다.

그리고 몇 달 후, 갑자기 회사에 소속되어 있는 모든 선박에 비상이 걸렸다. 선박 직원들의 대대적인 물갈이가 있을 거라는 소문 때문이었다. 소문은 사실이였다. 누군가가 회사에 투서를 넣은 것이다. 투서의 내용은 바로 ‘다른 배에서도 다 하는 관행’에 관한 내용이었으며 한 직원이 퇴직을 하며 선박에서 관행적으로 행해졌던 연료유 매매 행위에 대해 고발을 한 것이다.

그 고발 이후 회사는 발각 뒤집혔다. 소속되어 있는 전 선박에 대해 대대적인 조사가 이루어졌고 몇몇 선박들의 책임자와 가담자들은 경찰에 고발되었을 뿐만 아니라 회사에서는 해고 통보를 받았다. 물론 몇 달 전 그런 행위가 근절되었던 우리 선박은 그 칼날을 피해갈 수 있었다.

그런 일이 있고 며칠이 지났을까. 선장님께서 전 직원들을 소집하셨다.

“기관사에게 제가 큰 빚을 졌습니다. 그건 잘못된 일이었습니다. 좋은 게 좋

은 것이라 생각해서 한 일이었습니다만 그것은 명백한 범죄였습니다. 관행이라 괜찮다고 말했지만, 이는 자기합리화였으며 범죄인 줄 알면서도 저는 억지로 눈을 감아 버렸습니다. 여러분께 부끄러운 모습 보여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힘들었을 기관사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싶습니다.”

옆에 계셨던 기관장님도 한마디 하셨다.

“기관사에게 미안한 것이 너무 많습니다. 저는 개인적인 감정으로 그동안 기관사를 힘들게 하였습니다. 그 점 깊이 반성하고 저 또한 기관사에게 사죄를 구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선박의 두 어르신께서 모두가 보는 앞에서 기관사님에게 사과를 하셨다. 말없이 앉아 계셨던 기관사님의 두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만이 흘러내리고 있었다. 그동안의 마음고생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눈물이었다. 그리고 결국에는 본인의 결정이 옳았다는 깨달음의 눈물이었을 것이다.

위계질서와 상명하복이 고착화된 한국 사회에서는 부패에 대한 문제 제기가 권위에 대한 도전으로 오해받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그런 오해는 때로는 인사에 대한 보복이나 집단 따돌림으로 표출되어 올바르고 용기 있는 선택을 하는 이들을 좌절하게 만든다. 하지만 그런 사람들의 흔들리지 않는 신념은 위기의 순간마다 우리 사회를 지탱해주는 큰 힘이었고 대한민국을 이끄는 원동력이 되어 주었다.

그 일은 10년째 승선하고 있는 내 인생에 큰 획을 긋는 사건이었다. ‘권선징악(勸善懲惡)’이라는 지극히 평범하고 흔한 고사성어를 내 마음에 깊이 새겨 주었기 때문이다. 지금도 일을 하다 보면 가끔씩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검은 유혹이 다가올 때가 있다. 나는 그럴 때마다 기관사님이 흘리셨던 눈물을 생각 하며 크게 외친다. “안됩니다!” 라고 말이다.